



디지털 혁신과 소득불평등

조영현 연구위원

지난 30여 년 동안 소득불평등은 대부분의 OECD 국가에서 심화되었으며, 그 원인으로 세계화, 금융화, 미숙련노동을 대체하는 기술 발전, 노동조합의 약화 등이 지적되어 왔음. 이에 더해 Guellec and Paunov(2017)는 디지털 혁신이 소득불평등을 심화시킬 수 있다고 주장함. 디지털 혁신이 경쟁의 핵심요소인 산업에서는 높은 시장집중도와 창조적 파괴가 양립할 수 있는데, 이는 디지털 혁신에 의한 경쟁이 가격에 의한 것이 아니라, 근본적인 제품 혁신에 의하기 때문임. 디지털 혁신에 의해 증가된 지대(혹은 초과이익)는 주로 주주, 경영진 및 핵심 직원에게 분배되어 소득불평등을 유발할 수 있으며, 한편으로는 디지털 혁신이 창조적 파괴를 통해 사회 이동(social mobility)을 증가시킬 수도 있음

■ 지난 30여 년 동안 대부분의 OECD 국가에서 소득불평등이 심화되었음

- 미국의 경우 하위 1% 대비 상위 1%의 소득은 1980년대에 27배에서 2014년 81배로 급증함¹⁾
 - 미국 상위 1%의 소득 합계는 하위 50% 소득 합계의 두 배에 이름
- 그 동안 소득불평등의 원인으로는 세계화, 금융화, 미숙련노동을 대체하는 기술 발전, 노동조합의 약화 등이 지적되어 왔음
- 이에 더해 Guellec and Paunov(2017)는 디지털 혁신이 소득불평등을 심화시킬 수 있음을 주장함

■ 디지털 혁신은 많은 산업의 시장집중도를 높이고 지대(혹은 초과이익)를 발생시킴

- 성공적인 혁신의 경우 지적재산권 보호 등에 의해 독과점이 보장되므로 지대(rents)가 발생함
- 디지털 혁신에서 소요되는 비용은 개발단계에서 대부분 발생하며, 결과물의 실행이나 보급단계에서는 비용이 거의 발생하지 않는 특성이 있기 때문임
 - 이러한 비경합성(non-rivalry)²⁾으로 인해 디지털 혁신(IT, 소프트웨어 등)이 생산에 적용될수

1) Piketty et al.(2016) 참조

2) 비경합성이란 어떤 재화를 여러 사람이 함께 사용하더라도 경쟁이 일어나지 않는 성질을 말함

록 평균 비용이 낮아지며, 독과점적 시장이 형성될 수 있음

- 지난 수십 년 동안 무형의 디지털 제품이 미국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증가하였으며, 이에 시장집중화가 여러 산업으로 확산됨

● 디지털 비경합성의 결과로 많은 산업의 구조가 승자독식(winner-take-all) 구조로 변화함

- 디지털 혁신에 성공한 기업들은 세계화로 인해 국내 및 세계 시장에서 상당한 규모의 지대를 확보할 수 있게 됨

- 프로그램 및 데이터 등 디지털 혁신의 결과는 IT 이외의 산업에도 많은 영향을 미침

■ 디지털 혁신으로 증가된 지대는 주로 주주, 경영진 및 핵심 직원에게 분배되어 소득불평등을 유발함

● 주주는 배당 증가 및 주가 상승으로, 경영진 및 핵심 직원은 많은 스톡 옵션 및 성과급으로 지대를 분배받음

● 반면, 일부 핵심 직원을 제외한 일반적인 노동자들은 노동시장의 경쟁 증가 및 임시직 확대 등으로 지대의 분배에서 소외됨

- 미국에서는 최근 10여 년간 창출된 일자리의 상당수가 계약직, 일용직, 프리랜서 등이었으며, 이들은 협상력이 매우 낮아 지대의 분배에서 제외됨

■ 한편, 디지털 혁신은 혁신의 비용을 낮추어 창조적 파괴(creative destruction)가 발현될 가능성을 제고 시키고 기존 지배기업의 시장지배력을 약화시킬 수도 있음

● 프로그래밍 등 무형의 역량이 중요한 디지털 혁신은 다른 유형의 혁신에 비해 필요한 자본이 적으며, 이로 인해 창조적 아이디어를 구현하는 새로운 개인이나 작은 기업이 기존 지배기업을 압도할 여지가 있음

● 이러한 진입장벽의 완화로 인하여 과거에 비해 기업의 리스크가 커졌으며, 이에 투자자의 요구수익률이 높아지게 됨

- 이러한 논리로 지난 20여 년간 평균 자본수익률이 상승하고, 기업의 자본수익률 분포가 확대된 것을 설명할 수 있음

● 디지털 혁신이 경쟁의 핵심요소인 산업에서 높은 시장집중도와 창조적 파괴가 양립할 수 있는 이유는 디지털 혁신에 의한 경쟁이 가격에 의한 것이 아니라, 근본적인 제품 혁신에 의하기 때문임

- 아이폰이 기존 휴대폰 사업자를 압도한 것이 좋은 사례이며, 아이폰 역시 새로운 창조적 파괴자에 의해 시장지배력을 상실할 가능성이 있음

■ 그리고 디지털 혁신은 창조적 파괴를 통해 사회이동(social mobility)을 증가시킬 수 있음

- 실제로 80년대 이후 포브스(Forbes)가 발표한 최고 자산가 400인 중 상속자가 아니며, 사업으로 성공한 사람의 비율이 상승함
 - 단, 최고 자산가 400인 중 대졸자 비율도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나 전문적인 기술이나 고학력이 성공의 중요한 전제 조건일 수 있음³⁾
- 혁신성이 높은 지역일수록 상향 사회이동이 빈번하다는 연구결과도 있음⁴⁾ **kiri**

참고문헌



- Aghion P., U. Akcigit, A. Bergeaud, R. Blundell, and D. Hémous(2015), “Innovation and Top Income Inequality”, NBER Working Paper Series, National Bureau of Economic Research
- Guellec, D., and C. Paunov(2017), “Digital Innovation and the Distribution of Income”, NBER Working Paper Series, National Bureau of Economic Research
- Kaplan, S. and J. Rauh(2013), “It’s the Market: The Broad-based Rise in the Return to Top Talent”, *The Journal of Economic Perspectives*, Vol. 27(3), pp. 35~55
- Piketty, T., E. Saez, and G. Zucman(2016), “Distributional National Accounts: Methods and Estimates for the United States”, NBER Working Paper Series, National Bureau of Economic Research

3) 대졸자 비율이 1982년 77%에서 2011년 87%로 증가함. Kaplan and Rauh(2013) 참조

4) Aghion et al.(2015) 참조